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 <觀書有感>을 중심으로 -

정우락*

【 차례 】

1. 자연과 인간
2. 주자의 <觀書有感>
3. <관서유감>의 문학적 수용
4. <관서유감>의 문화적 응용
5. 문학과 문화의 交融
6. 마무리

【 국문초록 】

본고는 대표적인 도학시로 알려진 주자의 <관서유감>이 조선조 선비들의 문학과 문화에 어떻게 수용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심성의 소리와 함께 자연과 인간이 심성론적으로 교유되는 사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성리학자들은 우주 만물에 천리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천리가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가

* 이 논문은 지난 2014년 8월 26일에 경북대 퇴계연구소 주최로 개최되었던 북경 국제학술대회 ‘韓·中文化交流의展開樣相’에서 발표한 「朱子詩 <觀書有感>의韓國的收受容和文化的意義」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국문과 교수

능케 한다. 인간과 자연은 본체론적 측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으므로 합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연이 전하는 심성의 소리는 바로 이러한 경계에서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자의 <관서유감>은 문화적 측면에서 수용되기도 했다. 우선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방당을 파는 경우이다. 李滉과 李震相 등이 정원을 조성하며 방당을 파고 계곡의 물을 끌어 들인 것이나, 鄭汝昌을 봉향한 남계서원에 방당을 파고 연꽃을 심은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연물과 인공물에 <관서유감>과 관련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황이 명명한 안동의 天光雲影臺, 李堧가 명명한 강릉의 活來亭, 李震相이 명명한 성주의 一鑑軒 등이 모두 그것이다.

주자의 <관서유감>이 문학과 문화의 융합으로 나타났던 것은 구곡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주자의 武夷九曲을 모방해서 九曲園林을 경영하지만, 주자의 경영방식에서 훨씬 벗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물을 거슬러 오르며 샘의 근원인 源頭를 찾는 주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원두'는 다름 아닌 주자의 <관서유감>에서 제시되는 심성의 본원에 해당한다. 선비들은 구곡원림을 경영하면서 정사를 짓고 주자의 구곡시를 차운하였다. 이러한 문학과 문화의 융합은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한 특징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주자시, <觀書有感>, 문학적 수용, 문화적 응용, 심성론, 方唐, 天光雲影, 活水

1. 자연과 인간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기계론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자연을 역학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로 보는 관점(데카

르트의 경우)이고,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자연의 자립성 및 생명성을 부정하고 자연을 인간의 이용대상으로 파악하는 관점(피이테의 경우)이다. 그리고 유기체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살아 있는 주체이자 유기체로 파악하는 관점(셸링의 경우)이다. 이 가운데 유기체적 관점은 동양적 자연관의 근간을 이루며, 자연과 인간이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기계론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자연은 원래 험준한 산과 범람하는 홍수에서 보듯이 두려움의 존재였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畏敬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다. 명산과 대천에 대한 제사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것이리라. 『禮記』 「王制」에, “천자는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데 五嶽은 삼공이 주관하게 하며, 四瀆은 제후가 주관케 한다. 제후는 영지 안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지낸다.”¹⁾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자연에 대한 공포를 다스리고 외경하는 것이야말로, 치국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연을 통한 동양의 미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暢神과 比德이 그것이다. ‘창신’의 미의식은 宗炳(375-443)의 <畫山水序>에서 제시된 것으로, 자연에 의해 발생하는 맑고 화창한 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신의 해방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이 세속적인 것에 얽매임이 없이 활달해져서, 복잡한 인간세계를 초월하여 대자유의 심상을 체험하게 한다. 따라서 노장적 신선사상과 쉽게 결합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동양적 예술관은 이 ‘창신’의 미의식과 깊은 맥이 닿아 있다고 하겠다.

1) 『禮記』 「王制」, “天子祭天下名山大川, 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 諸侯祭名山大川之在其地.”

‘비덕’은 『시경』의 六儀, 즉 風·雅·頌·賦·比·興 가운데 하나인 ‘비’에서 출발한다. ‘비’는 상징작용이 내재된 비유다. 이것은 인간이 사물을 활용하여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생생하게 드러낼 때 사용한다. 이로 보아 비덕은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정서를 자연물을 통해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摯虞는 <文章流別論>에서 ‘비는 유사한 것으로 비유한 것을 말한다.’²⁾라고 하였고, 鍾嶸은 <詩品序>에서 ‘외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지를 비유해 내는 것이 비이다.’³⁾라고 하였다.

우리의 주제는 ‘자연-인간-심성’의 상관관계 속에서 설정된다. 이 때문이 기본적으로 ‘비덕’의 미의식에 밀착되어 있다. 비덕은 자연과 인간이 ‘性’으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다. 즉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면서 자연이 지닌 物性和 인간이 지닌 人性을 통일적 구도 속에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도달하는 경계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의미하는 ‘天人合一’ 그것이다. 널리 알려진 다음 자료를 보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 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⁴⁾

樂는 기뻐하여 좋아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事理에 통달하여 두루 흘러 정체가 아니니 물과 비슷한 것이 있는 까닭에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

2) 摯虞, <文章流別論>, “比者, 喻類之言也.”

3) 鍾嶸, <詩品序>, “因物喻之, 比也.”

4) 『論語』「雍也」,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람은 義理에 편안해서 厚重하여 옮기지 않아 산과 비슷한 까닭에 산을 좋아한다. 움직이고 고요한 것[動靜]은 본체로써 말한 것이고, 즐거워하고 오래 산다는 것[樂壽]은 효과로써 말한 것이다. 움직이되 막힘이 없으므로 즐거워하고, 고요하되 멧뻗함이 있으므로 오래 산다.⁵⁾

『논어』 「옹야」에 보이는 공자의 仁知에 대한 발언이다. ‘인지’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을 ‘산수’에 비유하고 있으니 ‘비덕’이 된다. 무엇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가?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주자의 해석에 의거하여 이해해 왔다. 주자는 그 이유를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통달해 있으므로 두루 흘러 정체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의리에 편안하여 두텁고 무겁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 논의는 ‘비덕’에 입각하여 성리학자들이 자연을 통해 심성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다. 심성은 인간이 지닌 본성을 의미한다. 성리학자들은 이 본성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어 비덕의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여기에 기반하여, 자연과 심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자의 대표적인 시 <觀書有感>을 제시하고, 이것이 조선에 들어와 문학 작품에 어떻게 수용되고, 문화에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이다.

주자의 <관서유감>에 대해서는 일찍이 鄭東和⁶⁾와 李九義⁷⁾가 주목한

5) 『論語』 「雍也」, 朱子註, “樂, 喜好也. 知者, 達於事理而周流無滯, 有似於水, 故樂水, 仁者, 安於義理而厚重不遷, 有似於山, 故樂山. 動靜以體言, 樂壽以效言也. 動而不括故樂, 靜而有常故壽.”

6) 정동화, 「도학적 시세계의 한 국면 - 주자의 <관서유감>과 그 한국적 수용에 대하여 -」, 『민족문화』 22, 민족문화추진회, 1999.

바 있다. 이들은 도학적 시세계의 한 국면을 이 시를 중심으로 밝히고, 한국적 수용 양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앞의 논의는 <관서유감>의 창작배경과 시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치중하여 논의가 사변적으로 흘렀고, 뒤의 논의는 한국적 수용의 양상에 착목하였으나 문화적인 측면을 간과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면서 주자시 <관서유감>의 한국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선조 선비들이 벌인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심성론적 交融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주자의 <觀書有感>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주자서가 들어와 조선의 독서계를 장악해나갔다. 주자는 “理는 하늘의 본체이고 命은 리의 작용이다. 性은 사람이 하늘에게 받은 것이고, 情은 본성의 작용이다.”⁹⁾라고 하였다. 이것은 저 유명한 『중용』 1장의 ‘天命之謂性’을 풀이한 것이다. 하늘의 본체가 ‘리’로 작용하여 사람의 마음에 부여되면 ‘성’이 된다. 이 ‘성’의 작용이 ‘정’인데, 이 때문에 선악이 갈라지게 되며, 心統性情의 말이 성립될 수 있다. 성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면, 정은 이미 움직여 드러난 상

7) 이구의, 「주자 <관서유감>시의 한국적 수용」, 『동아인문』 27, 동아인문학회, 2014.

8) 이 용어는 두 개체가 서로 ‘교섭’하여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과 인간이라는 서로 다른 개체가 상호 교섭하여 天人合一을 이룩하고, 마침내 이 둘이 융합되어 天人無間을 실현하는 것이다. 본고서의 교용은 바로 이런 의미로 쓰인다.

9) 朱熹, 『朱子語類』 卷5, “理者, 天之體, 命者, 理之用. 性是人之所受, 情是性之用.”

태이다. 주자는 마음과 性情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자는 독서를 매우 중시했다. 독서를 통해 성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 읽는 행위를 단순한 취미나 교양 쌓기가 아니라 천하의 이치를 깨우치는 ‘格物致知’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는 “독서는 격물의 한 가지 일이다. 지금 모름지기 단락에 따라 자세하게 이리저리 음미하고 이리저리 반복하여 하루 혹은 이틀 동안 단지 한 단락만을 본다면 이 한 단락은 바로 나의 것이 된다.”¹⁰⁾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독서를 통해 천하의 도리를 알고자 했다. 아래에 제시하는 <觀書有感> 역시 이러한 생각에 바탕하여 창작한 것인데, 이는 조선조 선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半畝方塘一鑑開 반 이랑의 모난 못이 한 거울로 열리니,
天光雲影共徘徊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를 하네.
問渠那得清如許 묻나니 어떻게 하여 이 같이 맑을 수 있는고?
爲有源頭活水來 원두에서 활수가 흘러오고 있기 때문이라네.¹¹⁾

주자는 37세 때 책을 읽다가 느낌이 있어 두 수의 시를 짓는다.¹²⁾ 위의 작품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문면 그대로 읽어보기로 하자. 조그마한 네모난 연못이 거울처럼 깨끗한데, 여기에 햇빛이 번쩍이고 구름 그

10) 朱熹, 『朱子語類』卷10, “讀書是格物一事, 今且須逐段子細玩味, 反來覆去, 或一日, 或兩日, 只看一段, 則這一段便是我底.”

11) 朱熹, 『晦庵集』卷2, <讀書有感>

12) 주자 <관서유감>의 나머지 한 수는 “昨夜江邊春水生, 鱸鉞巨艦一毛輕. 向來枉費推移力, 此日中流自在行.”이다. 이 작품 역시 차운시가 창작되는 등 다양한 관심을 보이는 하지만 본문에서 제시한 시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제시한 시로 한정해서 다룬다.

림자가 떠다닌다. 이에 주자는 연못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여 너는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는가?”라고. 이 물음에 대하여 연못은 대답한다. “원두에서 活水가 끊임없이 흘러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이다. 주자가 묻고 연못이 대답하였으니 문답법을 사용했고, 연못이 대답한다고 했으니 활유법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읽고 말면 주자의 본의를 놓치고 만다. 일찍이 金就礪가 스승 이황에게 이 시의 뜻을 물은 적이 있다. 이황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대개 方塘은 하나의 거울처럼 虛明하기 때문에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의 배회에 응하여 만상이 도피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 인심이 虛靈不昧하여 고요히 느끼는 것이 끝이 없어 응용이 무궁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신묘함에 감탄하여 묻기를, ‘방당이 어찌하여 것처럼 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 ‘원두로부터 흐르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 한다. 이것은 인심이 어찌 것처럼 신명할 수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타고 난 지극한 이치가 다하지 않기 때문임을 비유한 것이다.¹³⁾

퇴계학단에서 주자의 <관서유감>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李德弘의 질문에 대해서도 주자시 <관서유감>의 기구는 ‘마음 전체가 말갭게 비고 밝은 그 기상을 말한 것이요’, 승구는 ‘고요하면서도 사물에 감응하여 남김없이 사물마다 다 비춘다는 뜻이며’, 전구는 ‘어떻게 이렇게 맑은 본체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말한 것이요’, 결구는 ‘天命의 本然을 밝힌 것이다.’¹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심

13) 李滉, 『退溪集』 卷29, <答金而精>, “蓋謂方塘一鑑虛明, 能應光影徘徊, 萬象無逃, 以諭人心虛靈不昧, 寂感無邊, 應用不窮也. 因歎其妙而問, 方塘何以能如許清澈乎? 以有從頭活水源源而來故耳, 以諭人心何以能如許神明乎? 以有降衷至理源源不已故耳.”

성론적 교유를 감지하게 된다. 이황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훗날 申正模는 이것을 읽고 그동안의 의혹을 풀고 “책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일과 수많은 변화가 비록 끝이 없다고 하지만, 요체는 모두 내 마음이 갖추고 있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¹⁵⁾라고 한 바 있다. 학자적 군왕 正祖 또한 <관서유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관서유감>은 크게는 道體의 전체를 말하고, 작게는 이치의 은미함을 밝힌 것이다. <寄胡籍溪>는 千古의 心法을 주자가 이미 본받고 나서 또 모든 시냇물에 비치는 밝은 달처럼 사람마다 제각기 그 덕을 밝히기를 기대함으로써, 그러한 무거운 책임을 자신이 맡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¹⁶⁾

정조는 주자의 시를 특별히 좋아했다. 그는 주자의 시를 읽으면, “모든 찌꺼기가 다 녹아 없어지고 혈액이 확 트이며,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반면 뒤틀리고 괴벽하고 태만한 생각은 일지 않아 가까이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도 있다.”¹⁷⁾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주자의 <관서유감>이 ‘도체의 전체’와 ‘이치의 은미함’을 모두 밝힌 것이라 했다. 그리고

-
- 14) 李德弘, 『良齋集』 卷5, <溪山記善錄上>, “德弘問觀書一絕, 先生曰, 半畝方塘一鑑開, 言心之全體湛然虛明底氣象, 天光雲影共徘徊, 言心之大用散在事物底氣象, 問渠那得清如許, 全言其體用, 爲有源頭活水來, 以明天理之本然矣.”
- 15) 申正模, 『二恥齋集』 卷3, <敬書退溪先生解釋朱夫子觀書有感詩後>, “如是看則書中之萬事萬變, 雖曰不窮, 而要皆不外乎吾心所具之理.”
- 16) 正祖, 『弘齋全書』 卷182, <雅誦序>, “觀書有感者, 大而極乎道體之全, 而細而析夫理窟之微也. 寄胡籍溪者, 千古心法, 夫子既儀刑之, 而又將萬川之明月, 要與人各明其德, 以示任道自重之義也.”
- 17) 正祖, 『弘齋全書』 卷182, <雅誦序>, “消融渣滓, 動盪血脈, 易直子諒之心油然而生, 而非辟惰慢之志無以作, 邇之可以事父, 遠之可以事君.”

수많은 시냇물에 비치는 밝은 달의 비유를 들어 개별자[수많은 시냇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자[밝은 달]처럼 개별자 인간 누구에게나 도체가 흐르고 있음을 보였다. 이제 이러한 정보에 바탕하여 이 시의 본의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네모난 책[方冊]의 형태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관서유감>이다. 책을 읽다가 느낌이 있어 이 시를 지었다는 말이다. 주자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책의 네모난 형태이다. 네모난 이 책이 ‘하늘 빛’과 ‘구름 그림자’라고 하는 ‘천리’로 가득하다고 했다. 성현의 말씀 속에 내재 되어있는 인간 심성의 본질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는 일찍이 “사람이 배우는 것은 본래 마음에서 얻어 몸에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¹⁸⁾라고 했다. 독서는 결국 마음에서 얻고 몸에 체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리에 대한 인식과 그 실천이었던 것이다.

둘째, 책의 형태와 마음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의 다른 말이 方寸이다. 고인은 마음이 사방 한 치 되는 작은 넓이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¹⁹⁾ “대개 方寸 속에서 性情을 통괄하여 虛靈이라는 體와 知覺이라는 用을 가지고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18) 張洪, 『朱子讀書法』 卷3, “人之為學, 固是欲得之於心, 體之於身, 但不讀書, 則不知心之所得者何事.”

19)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기도 했다. 예컨대, 이황이 <天命圖>를 고칠 때 마음을 둥근 모양으로 그려 놓자 金謹恭이 “그렇지 않다. 옛사람은 마음을 方寸之地라 하였으니 마땅히 네모난 모양으로 그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황은 그의 잘못을 강력히 변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기대승은 醫書에도 ‘심장의 모양은 피지 않은 연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마음의 형체는 둥근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면서 마음을 方寸이라 말한 것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감응하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여 一身을 주재하고 온갖 변화에 酬酢하는 것이 마음이다.”²⁰⁾라고 할 때의 그 방촌이 바로 마음이다. 주자 역시 마음을 방촌으로 인식하고 네모난 책의 형태와 방촌을 결합시킨다. 이 때문에 1구에서 보듯이 ‘方塘’이라 하였던 것이다. 방당이 바로 방촌이기 때문이다.

셋째, 마음을 작은 연못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연못에 비유하고 있으니 ‘비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성리학자들은 마음을 虛靈不昧로 이해해 왔다. 그 실체와 작용이 텅 비어있으면서 靈妙하여 어둡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의 시에서처럼 연못이나 거울에 즐겨 비유하였던 것이다. 이 둘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어떤 사물이라도 비추어주지만 그것을 담아서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자는 여기서 나아가 연못 위에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배회한다고 했다. 조그마한 연못에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배회하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천리가 流行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인 것이다.

넷째, 수양론에 입각해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시에서 이야기한 ‘원두’는 물이 샘솟은 근원을, ‘활수’는 살아 있는 물, 즉 맑은 물을 의미한다. 원두에서 활수가 지속적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연못의 물이 항상 맑을 수 있고, 연못의 물이 맑기 때문에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良心의 싹이 항상 움트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리가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을 비덕으로 말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원두에서 양심이 지속적으로 움트게 되는데, 이것을 涵養하여 확충시켜나가면 마음이 천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궁

20) 李玄逸, 『葛庵集』 卷18, <權學士土範疑義>, “蓋統性情於方寸之間, 而有虛靈之體知覺之用, 寂然不動, 感而遂通, 主宰乎一身, 酬酢乎萬變者心也.”

정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주자는 <관서유감>이라는 짧은 시를 통해 성리학적 수양론을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 虛靈不昧한 마음에 천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네 모난 작은 연못에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배회한다며 비덕으로 노래하였던 것이다. 수많은 개별자 속에 존재하는 보편자 천리를 말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심이 성정을 통섭한다고 볼 때, 未發의 心體를 ‘性-활수’에, 已發의 心用을 ‘情-방당’에 대응시키면서 도학적 의미를 문학적 양식을 통해 표출하였다. 조선의 수많은 선비들은 주자의 이 시를 읽고 그들의 시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하였으며, 일상의 문화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다음 장의 과제다.

3. <관서유감>의 문학적 수용

주자의 <관서유감>은 어떻게 시문 속에 수용되고 있을까? 이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주자의 시를 차운하는 경우, 둘째, 이 시의 내용 혹은 용어의 일부를 用事하는 경우, 셋째, 이 시의 주요 용어를 작품의 제목으로 하는 경우, 넷째, 假傳體 문학 등에서 작품의 주요 소재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다. 조선조 성리학자들치고 주자의 <관서유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남길 수 있었다. 이것은 주자의 이 작품이 성리학적 심성론을 매우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몇 가지의 예를 통해 문학 속에 담긴 심성, 즉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주자의 <관서유감>을 차운하는 경우이다. 주자는 上平聲 ‘灰’운 가운데 ‘開’, ‘徊’, ‘來’를 운자로 사용하여 이 작품을 지었다. 대부분 ‘敬次’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들 차운시는 주자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성리학에 대한 심성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차운시를 지을 때 <관서유감> 두 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가운데 李萬敷와 李震相의 경우를 보자.

浚鑿方塘一鑑開 준설하여 연못을 파니 거울 하나 열리고,
天光雲影更徘徊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다시 배회하네.
問渠那復清如許 묻노니 저 물은 어찌 다시 그렇게 맑은가?
猶有源頭活水來 오히려 원류에서 활수가 흘러오기 때문이네.²¹⁾

萬壘雲山一路開 첩첩의 구름 낀 산 속에 한 가닥 길 열리는데,
碧桃花下鶴徘徊 푸른 도화 아래로 학이 배회를 하누나.
清溪曲曲多奇絕 맑은 시내 굽이굽이 빼어난 경치 많아서,
正是遊人向上來 바로 노니는 사람이 위를 향해 오는 것이라네.²²⁾

앞의 시는 이만부의 작품이다. 그는 자신의 서재 魯谷堂에 ‘天雲’이라 편액하고 주자의 <관서유감>시의 매 구마다 한두 글자를 바꾸어 서재에 걸어두고 성찰하였다. 뒤의 시는 이진상의 것이다. 이 작품은 뒤에 논의

21) 李萬敷, 『息山集』 卷2, <余嘗取朱先生詩語, 名魯谷堂顏曰天雲者, 以前有小塘, 光影可鑑故也. 谷之圯也, 塘爲沙石所填, 離進十許年, 任其荒廢矣. 今夏還棲舊庄, 只有天雲小堂, 而無天雲之實. 遂復浚鑿廢塘, 注水而臨之, 光影始依舊相涵, 自念吾胸中萬象森然之體, 若爲物欲所蔽, 則與塘之填沙石, 何以異哉. 於浚塘而驗吾心之尤, 不可不治也. 於是, 取先生詩, 每句換一兩字, 揭壁以自省焉.>

22) 李震相, 『寒洲集』 卷3, <次朱子觀書有感>

할 九曲詩와 기본적으로 발상을 같이 한다.²³⁾ 구름 낀 첩첩의 산 속으로 나 있는 한 가닥의 길은 이상향을 향해 들어가는 좁은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도화가 푸르게 피어있고 학이 배회하는 곳이다. 도가적 상상력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바, 성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도가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진상은 이 시를 통해 도화원이라는 도가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기실 이것으로 성리학적 천인합일의 경계를 나타내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유가적 이상이기 때문이다.²⁴⁾

둘째, 주자의 <관서유감>을 용사하는 경우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시에 나타나는 용어를 다양하게 용사하였다. ‘반묘’, ‘방당’, ‘일감’, ‘천광’, ‘운영’, ‘원두’, ‘활수’ 등이 특별히 많이 활용되던 용어이다. ‘흐들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너 그지 잇슬고’²⁵⁾라고 하거나, ‘하늘이 한 거울 열 어 화정을 두르고 있는데, 화려한 배 서서히 끌어 부평초를 헤쳐 가네.’²⁶⁾라고 하거나, ‘연잎 마른 반 이랑의 방당은 고요하고, 국화 시든 한 뜰은 호젓하여라’²⁷⁾라고 하는 등 허다한 구절이 모두 그것이다.²⁸⁾ 아래 자료

23) 제3구의 語辭는 더욱 구곡시와 흡사하다. ‘곡곡’, ‘기절’, ‘유인’ 등은 모두 주자의 <무이구곡>에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이다. 주자 <무이구곡>의 서시에 ‘山下寒流曲曲清’와 ‘欲識箇中奇絕處’, 8곡의 ‘自是遊人不上來’가 그것이다.

24) 이밖에도 주자의 <관서유감>을 차운한 시는 다양하다. 權輿이 “櫻桃坡下井新開，汲取煎茶日幾回。未將不食爲心惻，但愛源頭活水來。”(『石洲集』 卷7, <病中聞夜雨，有懷草堂，因敘平生>)라고 하거나, 都聖俞가 “盥讀遺詩意便開，函筵當日宛徘徊。清宵試向林塘月，恬淡無風鏡面來。”(『養直集』 卷1, <讀晦菴詩，敬次觀書有感>)라 한 것 등이 모두 그것이다.

25) 李滉, <陶山十二曲>, ‘言學·其六’.

26) 徐居正, 『四佳集』 卷18, <應製月山大君風月亭詩用前韻>, “天開一鑑繞華亭，畫舫徐牽劈盡萍。”

27) 李廷龜, 『月沙集』 卷1, <博川官舍，暫秣馬，主倅不在，適遇洪仲瑞少話而別，用板上韻，贈仲瑞>, “枯荷半塘靜，衰菊一庭深。”

28) 金駟孫은 <涵虛亭記>(『濯纓集』 卷3)에서, ‘내 늙고 병들었으니 어찌하면 한 번 水檻

역시 주자시 <관서유감>을 용사한 것이지만, 군신이 이 시에 공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하다.

時平觚墨笑韜鈴 태평할 때 필묵 잡고 兵書를 비웃더니,
 世亂戎機踣士林 난세에 전쟁 나자 사람들은 몸 둘 바 모르누나.
 半畝方塘便面筆 부채에 써서 내리신 반묘방당의 시구,
 至今誰識聖人心 지금 누가 임금님의 마음을 알아볼까?²⁹⁾

이 작품은 李植의 <携兒輩出寓湖堂偶題> 네 수 가운데 마지막 수이다. 이 시에는 “평시에 독서당에서는 대부분 마음이 풀어진 채 宴遊만 즐겼을 뿐, 학문에 매진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는 극진히 하지를 못하였다. 이에 宣廟께서 언젠가 부채에다 ‘半畝方塘’의 절구 한 수를 친히 쓰셔서 서당에 내린 뒤 각자 謝箋을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때 參判 李廷立이 科次에서 으뜸을 차지했었다.”³⁰⁾라는 주석도 달아 두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자의 <관서유감>이 조정에까지 널리 활용되면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알게 된다.

셋째, 주자 <관서유감>의 주요 용어를 작품의 제목으로 수용하는 경

에 기대어 배회하는 천광운영을 구경하며 그 맑은 물을 굽어보고 활수의 원천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고, 李楨은 <蓮潭辭>(『龜巖集』卷1)에서 “潭之水兮千丈, 鏡面平兮綠淨. 雲影兮徘徊, 擘芙蓉兮萬柄.”라 하였으며, 鄭澈은 <蓮池>(『松江別集』卷1)에서 “活水鏡樣澄, 方池纔丈許”라 했고, 林仁老는 가사작품 <獨樂堂>에서 “百尺 澄潭에 天光雲影이 일희여 즐겨시니”라고 하는 등 허다한 시문에서 주자시 <관서유감>이 용사되고 있다.

29) 李植, 『澤堂集』卷6, <携兒輩出寓湖堂, 偶題四絕>

30) 李植, 『澤堂集』卷6, <携兒輩出寓湖堂, 偶題四絕>, “平時, 書堂多縱宴遊, 不盡藏修之道, 宣廟嘗以扇面, 手書半畝方塘一絕下書堂, 使各進謝箋, 李參判廷立科次居首.”

우이다. 우선 <관서유감> 자체를 제목으로 하는 작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崔岙,³¹⁾ 金隆,³²⁾ 金進洙³³⁾의 <관서유감>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주제적 측면에서 주자의 그것을 모두 따랐다고 할 수 없어 그 영향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주자 <관서유감>에 나타나는 용어를 구체적인 제목에 활용한 경우는 주자시의 주제 방향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奇大升의 <天光雲影臺>라는 근체시, 柳希春의 <方塘>이라는 고시, 吳健의 <活水>라는 제목의 賦가 그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활수>의 일부를 들어보기로 한다.

環胸海之灑落	가슴 속에 가득한 쇠락한 기운,
一方塘之開鏡	하나의 모난 연못이 거울처럼 열렸네.
潛本體之虛靈	본체의 허령함에 잠겨들어,
渾溥博於丹田	광대함을 마음에 온전하게 하네.
絕渣滓之點汚	마음의 찌꺼기, 그 더러움을 끊어버리고,
涵太虛之浩然	太虛의 넓고 큼을 함양한다네.
澹光風於波面	비 갠 뒤의 시원한 바람 수면에서 조용하고,
照秋月於清漣	가을 달은 맑은 잔물결에 비친다네.
烟雲影之寒回	구름 그림자는 맑은 못에 배회하고,
淡天光之軒豁	하늘빛은 넓게 트여있구나.
妙徹上而徹下	미묘하게 위를 뚫고 아래로 이어져,
極清瑩而光明	지극히 맑으면서 밝다네.
知靜深之有本	고요하고 깊은 곳에 본원이 있다는 것을 아노니,
豈厥流之自清	어찌 그 흐름이 저절로 맑아지랴?

31) 崔岙, 『簡易集』 卷6, <觀書有感>

32) 金隆, 『勿巖集』 卷1, <觀書有感>

33) 金進洙, 『蓮坡詩抄』 卷下, <觀書有感>

擬一脉於源頭 한 맥을 원두에 엉기게 하여,
 釀純灑之潑潑 순수한 그 물의 활발함을 배양하리.³⁴⁾

이 작품은 제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주자의 <관서유감>을 따랐다. ‘活水’, ‘方塘’, ‘開鏡’, ‘天光’, ‘雲影’, ‘源頭’ 등의 용어가 모두 그것이다. 오건은 여기서 쇠락한 마음을 ‘방당’과 결합시키고 있다. ‘마음의 찌꺼기’라고 표현된 인욕을 버리고, ‘태허의 넓고 큼을 함양한다’라고 하면서 천리를 보존하고자 했다. 그 효과도 제시하였다. 맑은 잔물결에 비치는 가을 달, 넓게 트인 하늘빛, 지극히 맑고도 밝은 것 등이 그것이다. 사물의 근원이자 심성의 궁극처인 원두의 活潑性을 제시하면서 그 경계는 극치를 보였다. 심성의 함양과 천인합일의 묘리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넷째, 천군계 가전문학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천군계 가전은 ‘天君’, 즉 마음을 의인화한 교술문학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천군을 왕으로 삼고 그 아래 四端七情 등을 의인화한 신하를 설정하여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여기에는 心法의 논리가 깊이 게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金字顛의 <天君傳>을 효시로 하여 林悌의 <愁城誌>, 鄭泰齊의 <天君演義>, 李鉦의 <南靈傳>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남령전>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天君이 나라를 다스린 지 32년 여름 유월에 큰 장맛비가 내려 달이 넘도록 그치지지를 앓았다. 이에 靈臺 땅의 도적 秋心이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꾀하여 鬲縣·齊州 등지를 잇달아 함락시키니 方塘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34) 吳健, 『德溪集』 卷1, <活水>

천군이 몇 겁이나 에워싸여 그 核心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자, 모든 장수들을 불러들여 구원하도록 명하였다.³⁵⁾

<남령전>은 담배를 의인화한 ‘남령’을 주인공으로 하여, 근심을 없애는 데는 담배가 가장 효과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근심을 의인화한 도적 ‘추심’이 마음을 의인화한 ‘천군’의 나라를 침입한다. 이 때 천군은 마음의 본체에 해당하는 ‘방당’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장수 남령을 초빙하여 추심을 물리치고, 천군의 나라는 마침내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방당’은 천군계 가전체 문학에서도 두루 등장한다. 예컨대, 林梯가 <愁城誌>에서 천군이 다스리는 마음의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여 천군이 ‘半畝塘’ 가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연호도 ‘復初’로 고쳤다는 것이 그것이다. ‘방당’이 모두 마음의 본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선조 선비들은 성리학적 심성론을 중심으로 사유하고 생활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문학작품에는 주자의 <관서유감>이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었다. 수용의 범위는 운문과 산문을 가리지 않았고, 기법적 측면으로도 차운과 용사는 물론이고 작품의 제목까지 주자시를 엄두에 두면서 설정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심성의 근원을 찾아내고, 이것으로 자연과 일체를 이루며 천리를 확보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을 충분히 읽게 된다. 선비들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관서유감>의 다양한 수용은 바로 그 노력의 치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35) 李玉, 『梅花外史』, <南靈傳>, “天君御國之三十二年, 夏六月, 大霖雨, 踰月不止. 於是, 靈臺賊秋心, 起兵作亂, 連陷高縣齊州等地, 方塘失守, 圍天君數重, 困於核心, 徵諸將入援.”

4. <관서유감>의 문화적 응용

중국의 福建省에 있는 무이산, 그 자락에 위치한 崇安 五夫리는 주자가 어릴 때 살던 곳이다. 주자의 처가도 이곳에 있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농민들을 구휼하는 사창제도를 처음 시작했고, 이것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현재 오부리에는 朱子故居가 있다. 당호는 스승 劉子翬의 말에 의거하여 晦堂이라 하였고, 좌우의 협실은 『주역·곤』 「문언」에 입각하여 敬齋와 義齋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주자 스스로가 쓴 <明堂室記>에 자세하다.

주자고거 앞에는 주자의 <관서유감>에 근거하여 네모난 연못을 파놓고, 그 속에 朱墨으로 活源이라 새겨 놓았다. 네모난 못은 물론 ‘方塘’에 의거한 것이고, ‘활원’은 주자의 시 ‘源頭活水’에서 따온 것이다. 주자고거 앞 방당의 물은 조금 위쪽에 위치한 산기슭에서 끌어들었다. ‘源頭活水來’를 엄두에 둔 조성이다. 산기슭의 작은 연못인 원두에는 靈泉이라 새겨두었다. 마음을 ‘虛靈’으로 표현하니, 주자가 <관서유감>을 통해 제시하려고 하는 수양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조선의 선비들 역시 주자의 <관서유감>에 따라 집안이나 서원에 연못을 조성할 경우 방당을 팠다. 예컨대 이황이 풍기군수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못을 파고 ‘光影塘’이라 하거나, 李震相이 軒號를 ‘一鑑’이라 하고 방당을 파서 계곡의 물을 끌어들인 것이나, 정여창을 봉향하고 있는 濼溪書院에서 방당을 파고 연을 심은 것 등이 모두 그것이다. 이러한 허다한 예는 주자의 <관서유감>이 우리나라의 정원을 바꾸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리학적 수양론에 입각하여, 정원을 만들어 가꾸어가자는 것

이었다. 李應喜가 東池를 조성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磧上方塘塘上壇 시냇가에 네모난 연못 연못가의 단,
 幽人閑占別區寬 유인이 한가로이 넉넉한 별천지 차지했구나.
 千絲弱柳牽風細 천 가닥 실버들은 바람에 하늘대고,
 百尺長松翳日寒 백 척의 높은 솔은 햇살 가려 차가워라.
 永夕高懷猶覓句 긴 밤에도 고아한 회포는 여전히 시구 찾고,
 老年深趣在觀瀾 노년에 깊은 취미는 물결 구경에 있어라.
 欲看此地眞奇狀 이곳의 기이한 형상 보고 싶으면,
 須向西山仰衆巒 서산 쪽으로 봉우리들을 보아야 하리.³⁶⁾

이 시의 수련에서 보듯이 이응희는 시냇가에 ‘방당’을 조성하였다. 특히 경련에서 방당에서의 詩作 활동과 함께 물결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맹자는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³⁷⁾라고 하였다. 『孟子』 「盡心」장이 출전인 이 구절은 물결이 세찬 물은 그 源泉이 깊듯이 聖人の 학문도 그 근원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수련에서 제시한 ‘방당’의 근원이 깊을 때, 경련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물결이 세찰 수 있다는 것이다. 물결을 통해 근원을 감지하고, 근원을 통해 물결을 이해하는 쌍방향의 看法을 제시하며, 연못을 조성하여 생활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다.

자연에 대한 명명의식에도 주자의 <관서유감>은 활용되었다. 金安國이 <八怡亭八詠>의 하나로 <半畝清鑑>을 노래한 것이나, 이황이 도산서당 앞

36) 李應喜, 『玉潭遺稿』, <東池>

37) 『孟子』, 「盡心章句」上, “觀水有術, 必觀其瀾.”

의 대를 天光雲影臺라 명명한 것은 그 대표적이다. 특히 이황은 靈芝山の 동쪽 기슭 陶山에 서당을 짓고 문생을 길렀다. 그는 <도산기>를 써서 도산서당의 건립배경과 과정, 도산 주변의 풍경과 이에 따른 감흥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명소에 7언시 18수를 남기고, 오언시 26수를 따로 지었다. 18수 가운데 하나가 <천광운영대>다. 이황이 지은 것과 기대승의 차운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活水天雲鑑影光 거울 같은 활수에 하늘빛 구름 그림자 비추니,
 觀書深喻在方塘 책을 보다가 깊은 깨달음이 네모난 연못에 있었네.
 我今得在清潭上 나도 지금 맑은 못 위에서 뜻을 얻으니,
 恰似當年感歎長 주자의 당년에 감탄하던 것과 흡사하네.³⁸⁾

滄波凝湛寫天光 창과는 맑게 어러 하늘빛 비쳤으니,
 何似當年半畝塘 당년의 반묘 방당과 어떠하뇨?
 固是靜深含萬象 진실로 고요하고 깊어 만상을 함축하니,
 誰知溥博發源長 넓고 넓어 발원이 긴 것을 뒤라서 알리오.³⁹⁾

<천광운영대>는 일명 天雲臺로 불리기도 했다.⁴⁰⁾ 앞의 것은 스승 이황의 작품이고, 뒤의 것은 제자 기대승의 작품이다. 이 두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자의 <관서유감>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목부터 ‘천광운영’이니 <관서유감> 승구의 ‘天光雲影共徘徊’에서 따온 것이다. 시의

38) 李滉, 『退溪集』 卷3, <天光雲影臺>

39) 奇大升, 『高峯集』 卷1, <天光雲影臺>

40) 송시열 역시 ‘天雲臺’를 <靈芝洞八詠>(『宋子大全』 卷2) 가운데 하나로 설정, 주자의 <관서유감>을 염두에 두면서 “半畝方塘上, 何人小作臺. 天雲涵活水, 還自武夷來.”라는 시를 지었다.

내용도, 앞의 시에서는 ‘活水’·‘天雲’·‘鑑’·‘影光’·‘觀書’·‘方塘’이, 뒤의 시에서는 ‘天光’·‘半畝’·‘源’이 모두 같은 주자시에서 용사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황은 맑은 못 위에서 뜻을 얻었다고 했고, 기대승은 못이 고요하고 깊어 만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 자연과 인간의 합일경계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다. 즉 이들은 하늘을 온전히 품은 인간 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선비들은 자연물뿐 아니라 인공물의 이름도 <관서유감>에 근거해 짓기를 즐겼다. 앞서 말한 이진상의 ‘一鑑軒’은 물론이고, 경북 군위군 한밤마을 소재의 活源亭,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活來亭 등이 모두 그것이다. 이 가운데 활래정의 경우를 들어본다. 활래정은 경포호 가의 仙橋庄에 위치한다. 영조 때 李乃蕃이 처음 지었고, 그 뒤 순조 때 李堉가 1815년 열화당을 짓고 1816년 활래정을 지으면서 저택을 일신했다. 활래정에 대한 기문은 趙寅永이 썼다. 그는 이 글에서, ‘선교장 옆에 독을 쌓아 물을 가두어 錢塘蓮을 심고 그 위에 정자를 지어 주자의 시구 活水來의 뜻을 위해 ‘活來’라고 하였다.’⁴¹⁾는 주인의 뜻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晦翁은 마음을 물에 비유하였는데 물은 진실로 비어있는 거울이다. 지금 그대는 진실로 이 같은 맑고 잔잔한 물결만을 활수라 하는가. 물이라 이름붙인 것은 모두 活物이다. 샘물은 흘러 쉬지 않고, 우물은 길어내도 마르지 않고, 커다란 강과 바다처럼 온갖 모양을 갖춘 물결도 살아 있지 못하면 물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⁴²⁾

41) 趙寅永, 『雲石遺稿』 卷10, <活來亭記>, “今年秋, 伯兼來言, 於庄左築堤而貯水, 以錢塘蓮種之, 置亭其上, 取晦翁詩活水來之義, 扁曰活來.”

42) 趙寅永, 『雲石遺稿』 卷10, <活來亭記>, “蓋晦翁以心而喻諸水, 水固虛境也. 今子眞以是清激淪漣者, 爲活水乎? 且以水名者, 皆活物也. 泉流而不息, 井用而不竭, 江海之大, 波浪

주자의 생각에 따라 마음과 물과 거울은 ‘虛明’한 것을 본질로 보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밝기 때문에 세계를 비춰볼 수 있다. 조인영은 이 글에서 물을 ‘活物’이라 하고 있다. 그 자신이 살아 있으므로 샘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우물물을 길어내도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물을 살릴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마음도 본질적으로 활물이지만, 활물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外物에 더러워지기 때문이라 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이어서 들기도 했는데, 벼슬하는 사람이 충애를 잃을까 근심하고, 보통 사람이 이익을 쫓아다니는 것 등이 그것이라 했다.⁴³⁾ 이 때문에 사람과 하늘은 멀어지고 만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조선의 선비들이 정원을 만들며 방당을 파기도 하고, 주자의 심성론을 가져와 사물을 명명하기도 하며, 건축물에도 심성론적 용어를 활용하여 편액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모두 이들의 문화 속에 심성을 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심성이 담긴 문화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거리를 배제한다. 여기에서 자연히 자연과 인간의 심성론적 교유가 일어난다. 이러한 생각은 조선시대 선비문화에 두루 나타나는 바, 회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姜希顔의 <高士觀水圖>나 金明國의 <倚木觀水圖> 등에서 이것은 확인된다. 선비가 느긋하게 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하늘을 담아 내려고 한 노력들, 이러한 문화가 선비문화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萬狀，不活不足爲水。”

43) 趙寅永, 『雲石遺稿』 卷10, <活來亭記>, “人之心, 本無有不活, 而患不能活者, 由其有外物累之也, 仕宦者, 憂寵辱, 庶民循利, 士無以爲衣食之奉, 舟車之資.”

5. 문학과 문화의 交融

주자의 <관서유감>이 거주지에 조성된 方塘을 중심으로 창작된 것이라면, 이를 園林의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武夷九曲이다. 주자는 복건성에 소재한 무이산 계류를 따라 구곡을 설정하고 <武夷權歌>, 즉 武夷九曲詩를 지었던 것이다. <관서유감>이 원두를 강조하며 천리가 유행하는 심성의 근원을 제시한 것이라면, <무이도가>는 물을 거슬러 오르며 그 원두를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무이구곡은 그가 은거했던 무이산 계류를 따라 9.5km의 거리에 펼쳐져 있다. 시냇가에는 36봉우리와 37암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주자는 그 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아홉 굽이를 설정하고 각 굽이마다 칠언절구 한 수씩을 지었다.

주자의 <무이도가>는 조선조 선비들에게 성리학적 시심을 자극했다.⁴⁴⁾ 한시의 경우, 주자의 <무이도가>에 대한 和次韻詩로 나타났다. 朴河澗의 <운문구곡>을 비롯해서 <도산구곡시>나 <무흘구곡시> 등 허다한 구곡시가 그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각운이나 시형식이 주자의 그것에서 훨씬 벗어난 것도 있다. 이상정의 <高山七曲>은 9곡이 7곡으로 줄어들지만 주자의 <무이도가>를 연상하게 하며, 張福樞의 <墨坊十詠>은 제목을 달리 하지만 시적 전개와 방향이 주자의 <무이도가>와 거의 일치한다.

<무이도가>의 영향은 한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황과 달리 李珣가 연작시조 형태의 <高山九曲歌>를 지으면서, 국문 구곡가는 기호학과를 중

44) 주자의 <무이도가>가 조선에 수용되면서 조선조 지식인들은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홍의 『사립과문학의 연구』(형설출판사, 1985)에 자세하다.

심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 같은 시가 형태는 權變의 <黃江九曲歌> 등으로 이어지며, 가사체로도 창작되기도 한다. 柳重教의 <玉溪九曲歌>와 李道復의 <驕山九曲歌>, 그리고 작자 미상의 <雲山九曲指路歌>는 그 대표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근대계몽기에는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작품이 발표되기도 했다. 文在穆의 <和九曲歌>나 朴陽園의 <和九曲棹歌> 등이 그것이다.⁴⁵⁾

본고는 성주와 김천에 걸쳐있는 무흘구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무흘구곡은 鄭述가 武屹을 경영하면서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하고, 나아가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를 창작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주자의 무이구곡을 상상하며 차운한 듯하지만, 무흘구곡 실경에 더욱 밀착되어 있어서 후인들은 아예 정구의 무흘구곡이라 부르며 적극적으로 차운하였다. 정구는 이 시의 <서시>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만고에 길이 흐르는 도덕의 소리여!’⁴⁶⁾라 하였다. 비덕의 미의식에 입각하여 자연에 도덕을 투사하고 있다. 자연에서 심성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제1곡과 제9곡은 다음과 같다.

一曲灘頭泛釣船 일곡이라 여울 어귀에 낚싯배를 띄우니,
 風絲繚繞夕陽川 석양빛 시내 위에 실 같은 바람 감도네.
 誰知捐盡人間念 뉘 알리오, 인간세상의 잡념 다 버리고,
 唯執檀槳拂晚煙 박달나무 삿대 잡고 저문 안개 휘젓는 줄을.⁴⁷⁾

45)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에 대해서는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연구회, 1991)을 참조할 수 있다.

46) 鄭述, 『寒岡集』 卷1,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天下山誰最著靈, 人間無似此幽清. 紫陽況復曾棲息, 萬古長流道德聲.”

47) 鄭述, 『寒岡集』 卷1,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九曲回頭更喟然 구곡이라 머리 돌려 다시 탄식하노니,
 我心非爲好山川 이내 마음 산천만 좋아함이 아니라네.
 源頭自有難言妙 샘의 근원에는 절로 형언 못할 묘리 있어,
 捨此何須問別天 이를 버려두고 어찌 별천지를 찾으리.⁴⁸⁾

주자의 무이구곡은 제1곡에서 제9곡으로 거슬러 오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죽계구곡처럼 물을 따라 내려오면서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구곡을 설정하고 구곡시를 짓는다. 정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1곡에서 정구는 인간세상에서 발생하는 잡념을 모두 버리고 자연과 합일하고자 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 제9곡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정구는 <관서유감>의 ‘源頭’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묘리가 있다면서 별천지가 바로 여기라 했다. 샘의 근원이 있는 별천지라 하였으니, 자연 속에서 심성의 본원을 발견한 것이다.

무흘구곡은 다양한 사람에 의해 차운되었다. 정동박은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金尙眞에게 부탁하여 <武屹九曲圖>를 그리게 하고, 각 곡마다 두 수의 시를 지었다. 무흘구곡 차운시는 鄭堦의 <敬次先祖文穆公武屹九曲韻十絶>와 鄭觀永의 <詠武屹九曲詩十首>, 그리고 崔鶴吉의 <敬次武屹九曲韻>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모두 제1곡 鳳飛巖에서 제9곡 龍湫로 거슬러 오르며 구곡시를 지었다. 근년에는 대만대 文幸福 교수가 차운시를 짓기도 했다. <讀武屹九曲圖帖抒感步玉>⁴⁹⁾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1곡과

48) 鄭述, 『寒岡集』 卷1,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49) 이 시는 1995년 대만대 문행복 교수가 무흘구곡을 탐방하면서 김상진의 <무흘구곡도>와 정구의 구곡시를 보고 차운한 것이다.

제9곡은 다음과 같다.

一曲飛巖傍釣船	일곡이라 봉비암 가에 낚싯배 있으니,
碧螺峰映碧流川	푸른 소라 같은 봉우리 푸른 시내에 비치네.
人間那得清幽境	인간세상에서 어떡하면 맑고 그윽한 경치를 얻을 수 있나?
滌淨塵埃嘯晚煙	티끌을 깨끗이 씻고 저녁 연기 속에서 휘파람부네.
九曲窮攀愛自然	구곡이라 막히는 곳에서 자연스러움을 사랑하노니,
登峰極目妙山川	봉우리에 올라 눈을 들어 오묘한 산천을 본다네.
活源汨汨龍湫水	활원이 넘실대는 용추의 물은,
涵映靈光洞澈天	신령스런 빛 머금어 하늘까지 비추어 환하네.

위의 작품 제1곡에서 문행복은 정구의 제1곡시를 떠올리며 鳳飛巖의 낚시배와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잡념을 끊고 자연 속에서 逍遙하고자 했다. 그리고 제9곡시에서는 ‘活源’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정구가 제9곡시에서 제시한 ‘源頭’와 마찬가지로 주자시 <관서유감>의 ‘源頭活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심성본체의 신령스러움을, 물이 신비한 근원을 통해 끊임 없이 흘러드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도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天人合一의 경계를 이룩할 수 있었다. 나아가 문행복은 무흘구곡 전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로 요약하기도 했다.

陟彼寒岡眺鳳飛	저 한강대에 올라 봉비암을 바라보고,
立巖鶴舞共斜暉	입암과 무학정은 함께 햇빛이 비끼어 있네.
懸流玉洞高人去	세차게 흐르는 옥류동 고인은 떠나갔고,
捨印銀灘濁世遺	사인암 은빛 여울 탁한 세상 버렸다네.
滿月清潭涵桂影	만월담 맑은 연못에 계수나무 그림자 드리워져 있고,

臥龍鉅璞隱天機 外룡암 큰 바위는 천기를 숨겼도다.
 最憐白瀑難言妙 가장 사랑스런 구폭은 말하기 어려운 묘함이 있고,
 九曲名山賢者依 구곡 명산에는 현자가 깃들어 있네.⁵⁰⁾

이 작품은 문행복이 1995년 무흘구곡과 회연서원을 답사하고 느낀 바를 시로 지어 필자에게 준 것이다. 이 작품에는 무흘구곡 모두가 등장한다. 제1곡 봉비암, 제2곡 한강대, 제3곡 무학정, 제4곡 입암, 제5곡 사인암, 제6곡 옥류동, 제7곡 만월담, 제8곡 외룡암, 제9곡 용추[일명 구폭]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9곡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묘함이 있다.’고 했다. 정구가 제9곡에서 ‘샘의 근원에는 절로 형언 못할 묘리 있’다고 한 것을 의식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그는 賢者, 즉 정구를 떠올리며 구곡 명산과 현자의 상관성을 밀도 있게 노래하였던 것이다.

조선조 선비들은 지속적으로 문학과 문화를 융합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자의 <관서유감>을 염두에 두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학과 문화를 융합시키기 위한 노력은 구곡문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곡시를 창작하며 구곡원림을 경영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현재 알려진 구곡원림은 150곳을 상회하고 있어, 주자학이 조선에 광범하게 뿌리내렸던 사실을 목시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고, 문학과 문화가 융합되고 있어 조선의 선비들의 심성론적 자연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0) 文幸福, <寒岡第十五代裔孫, 鄭羽洛先生, 宴游武屹九曲暨檜淵書院>

6. 마무리

이 글은 대표적인 도학시 주자의 <관서유감>이 조선조 선비들의 문학과 문화에 어떻게 수용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심성의 소리와 함께 자연과 인간이 심성론적으로交融되는 사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성리학자들은 우주 만물에 천리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천리가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 인간과 자연은 본체론적 측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으므로 합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연이 전하는 심성의 소리는 바로 이러한 경계에서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리학자들은 마음을 거울과 연못에 비유하기를 즐겼다. 주자시 <관서유감>은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자는 이 작품에서, 네모난 책[方冊]과 네모난 연못[方塘]과 네모난 마음[方寸]을 결합시키면서 마음속에 천리가 유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맑은 연못에 떠도는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즉 天光雲影으로 이것을 제시하였다. 비유를 통해 성리학적 이치를 제시하는 比德의 미의식이 작동된 것이다. 주자는 여기서 천리의 보존은 活水가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여기에는 주자의 인간에 대한 신뢰와 비전이 함께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주자의 <관서유감>은 성리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학에 다양하게 수용되었다. 성리서를 읽으며 이와 관련된 글쓰기를 시도하였던 그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관서유감>에 대한 차운시 짓기, 이 시에서 用事 하기, 이 시의 주요 개념을 제목으로 하여 작품 창작하기, 천군계 가전체 문학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조 선비들이 주자의 <관서유감>을 그들의 창작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가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주자의 <관서유감>은 문화적 측면에서 수용되기도 했다. 우선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방당을 파는 경우이다. 이황과 이진상 등이 정원을 조성하며 방당을 파고 계곡의 물을 끌어 들인 것이나, 정여창을 봉향한 남계서원에 방당을 파고 연꽃을 심은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연물과 인공물에 <관서유감>과 관련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황이 명명한 안동의 천광운영대, 이후가 명명한 강릉의 활래정, 이진상이 명명한 성주의 일감현 등이 모두 그것이다.

주자의 <관서유감>이 문학과 문화의 융합으로 나타났던 것은 구곡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주자의 무이구곡을 모방해서 구곡원림을 경영하지만, 주자의 경영방식에서 훨씬 벗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물을 거슬러 오르며 샘의 근원인 원두를 찾는 주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구곡은 150곳을 상회한다. 선비들은 九曲園林을 경영하면서 精舍를 짓고 주자의 구곡시를 차운하였다. 이러한 문학과 문화의 융합은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한 특징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의 소통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는 주자의 <관서유감>과 이에 열광하였던 조선조 선비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우주에 편만해 있는 수많은 개별자 속에 존재하는 보편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천리라 생각하며 일체감을 갖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문학과 문화 속에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한 주자의 <관서유감>에 대한 한국적 수용양상

은 하나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조선조 선비들은 이보다 훨씬 광범하게 심성론을 기반으로 소통과 융합의 인문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論語』
- 『孟子』
- 『禮記』
- 『朱子語類』
- 『晦庵集』
- 權 輿, 『石洲集』
- 奇大升, 『高峯集』
- 金 隆, 『勿巖集』
- 金駟孫, 『濯纓集』
- 金進洙, 『蓮坡詩抄』
- 都聖俞, 『養直集』
- 徐居正, 『四佳集』
- 宋時烈, 『宋子大全』
- 申正模, 『二恥齋集』
- 吳 健, 『德溪集』
- 李 植, 『澤堂集』
- 李 玉, 『梅花外史』
- 李 楨, 『龜巖集』
- 李 滉, 『退溪集』

李萬敷, 『息山集』
李德弘, 『良齋集』
李應喜, 『玉潭遺稿』
李廷龜, 『月沙集』
李震相, 『寒洲集』
李玄逸, 『葛庵集』
張 洪, 『朱子讀書法』
鄭 述, 『寒岡集』
正 祖, 『弘齋全書』
鄭 澈, 『松江別集』
趙寅永, 『雲石遺稿』
崔 昱, 『簡易集』

-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연구회, 1991. 35-86쪽.
- 이구의, 「주자 <관서유감>시의 한국적 수용」, 『동아인문』 27, 동아인문학회, 2014. 95-135쪽.
- 이민홍, 『사림과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5.
- 정동화, 「도학적 시세계의 한 국면 - 주자의 「관서유감」과 그 한국적 수용에 대하여 -」, 『민족문화』 22, 민족문화추진회, 1999. 162-189쪽.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영남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177-217쪽.
- 정우락, 「寒岡 鄭述의 武屹 경영과 武屹九曲 정작과정」,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85-125쪽.
- 정우락·백두현, 「문화어문학: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혁신」, 『어문론총』 60, 한국 문학언어학회, 2014. 9-41쪽.
- 정우락,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의 한문학적 독해」, 『어문론총』 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323-354쪽.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Acceptance and Cultural Application of Poetry by Zhu Xi

– With a focus on < *Thoughts from Reading* (觀書有感) > –

Jeong, Woo-Rak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ways < *Thoughts from Reading* (觀書有感), a representative collection of moral philosophical poems by Zhu Xi, was accepted and developed in the literature and culture of classical scholars in Joseon. The process helped us fully perceive the sounds of mind that nature conveyed to human beings and the mind-based exchanges between nature and man. The Neo-Confucian scholars believed that there was the natural law in all things in the universe, which means that the natural law is found in nature as well as man. It was believed that man and nature had no difference at all between them in the aspect of main body theory and accordingly could achieve unity between them. It was along that boundary that the sounds of mind conveyed by nature would be heard.

Zhu Xi's < *Thoughts from Reading* > was also accepted in the cultural aspect. The classical scholars of Joseon would dig up a square pond when building a garden including the cases of Lee Hwang and Lee Jin-sang, who built a garden, dug up a square pond, and had the valley water flow into it. They also dug up a square pond and planted lotus flowers there at Namgye Seowon where Jeong Yeo-chang was enshrined. They would also give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names related to < *Thoughts from Reading* > including Cheongwangwoonyeongdae (天光雲影臺) of Andong named by Lee Hwang, Hwallaejeong(活來亭) of Gangreung named by Lee Hu, and Ilgamheon(一鑑軒) of Seongju named by Lee Jin-sang.

A look at Gugok poetry shows the fusion of literature and culture in <Thoughts from Reading> by Zhu Xi. The classical scholars of Joseon managed Gugokwonrim(九曲園林) by copying his Muigugok(武夷九曲), but they moved away from his management style. Except for a few cases, however, they usually followed his style of tracing up the flow and finding the origin of spring called “Wondu(源頭)”, which is the source of mind presented in his <Thoughts from Reading>. The classical scholars built a pavilion and borrowed the rhyming words from his Gugok poems, managing Gugokwonrim. The fusion of literature and culture became one of the features of classical scholars’ culture in Joseon, and they tried to achieve unity between nature and man actively through it.

Key Word

poetry by Zhu Xi, <Thoughts from Reading>, literary acceptance, cultural application, mind theory, square pond, Cheongwangwoonyeong(天光雲影), Hwalsu(活水)

▪ 논문투고일 : 2015.7.02 심사완료일 : 2015.8.11 게재결정일 : 2015.8.14